

집안일은 어려워

작은 부엌에서도 큰 재미가 피어나요





배정삼과 김정색이 작은 부엌에서 하루를 열었어요. 두 사람은 늘 그렇듯 웃음 가득, 장난 가득, 즐겁게 시간을 소복히 쌓아갔지요.



김정색은 큰 냄비를 높이 들고, 배정삼은 그 곁에서 쿡쿡
쏟아지는 웃음과 함께 요리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. '여기서
뭐부터 시작할까요?'



둘은 함께 재료를 섞으며 맛보고 웃었어요. 재료들마저 '솔솔, 사랑, 또 솔솔.' 손끝에서 춤을 추며 가마솥에 몸을 맡겼지요.



갑작스럽게도 찰나의 순간, 배정삼이 냄비를 엎어버리고
말았어요! 김정색은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고, 부엌에 울려퍼진
쿵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.



배정삼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음꽃 피웠어요. '아하하,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.' 함께 마무리하며 두 마음은 더 끈끈하게
얽였어요.



끝

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.

집안일은 어려워

글·그림 올레길

© 2026 올레길 · Storypia